

여성학 입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여성

제4강 TV매체 속 여성과 사회

강사 : 박남희

◆ 일일연속극에서의 여성

※ 학습목표

대중매체속의 여성의 모습을 일일연속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TV .

▲ 일일연속극에서의 여성

이전에는 대중문화나 대중매체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성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대중문화 속의 여성의 모습도 바뀌어간다 세기인 지금 문화 속에서 왜곡되었던 여성상이 얼마나 수정되고 개선되었는지를 여성의 시각에서 다시 보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것은 광고와 더불어 TV의 일일연속극을 들 수 있다 일일연속극에서 여성의 문제들은 어떻게 부각되고 있을까?

- 굳세어라 금순아

2005 MBC 년도 에서 방영된 굳세어라 금순아에서는 주인공 금순이를 둘러싼 여러 여성들이 등장한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금순이를 할머니는 안쓰럽게 여기며 행복해지기를 . 바라지만 재가한 며느리는 미워하며 불행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모순을 통해 여성의 재혼 , . 문제를 다뤘으며 여성간의 관계 여성 간의 격차의 문제 등을 다뤘다 ,

-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에서는 여러 가지 여성상이 등장한다 특이할만하나 것은 드라마에서 기존에 여성들을 그릴 때 예쁜 여성들이 살림도 잘하고 짹짹한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엇박자로 바꿔낸다 무뚝뚝하지만 일을 잘하는 여성과 예쁘지만 살림을 잘못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가난한 집 딸들이 살림을 잘한다는 기존의 공식을 볼 수 있다 또 여전히 여성의 능력은 살림을 잘하는 것인 양 그려지고 있다.

▲ 냄비안의 개구리

여성에 대한 시각이 예전에 비해 개선된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예전과는 다르다 며 자기위안 삼는다 이런 자기위안은 위기 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오히려 더 망각하기 쉽다 개구리에 대한 비유가 있다 펄펄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는 뜨거워서 얼른 뛰어나오지만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는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익어서 죽음을 맞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누구 나 봤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도록 여성문제가 돌출되었는데 오늘날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문제를 못 느끼거나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구조적으로 가려지고 드러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성문제는 오도되기 쉽다.

▲ 이미지의 시대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사회다 물질을 매개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소속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일전에는 필요에 의해 물질을 소비했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나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었다 브랜드를 따지며 명품이 보장하는 이미지를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상품 그 자체를 소비한다기보다 상품이 주는 이미지라는 것을 소비하는 사회다 상품의 이미지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면 신분상승하는 것이다 신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었다 그것이 혈통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남성에 의해 여성의 신분이 좌지우지 됐다면 지금은 여자들끼리도 상품에 의해 이미지를 달리 소비하면서 차별이 생기고 신분이 갈린다 성적 차별이 남성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물질의 노예 이미지의 노예를 무의식중에 자처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에서 여성이 망각하기 쉬운 문제 중 하나다.

▲ 여성의 이미지는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 이면에는 전통적인 남성적 사유가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여성들이 소비하는 상품은 아름다운 여성 능력 있는 여성 등의 문구를 동원해 광고하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여성 능력 있는 여성이 아닌 것처럼 몰아간다 이런 메커니즘은 여성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하나로 규정하고 컨트롤하려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성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여성운동 여성에 대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 외모지상주의와 명품열풍

▲ 강요되는 아름다움

대중매체에 세뇌된 여성들은 자신이 사유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유를 받아들인다. 미디어의 조작에 의해 외모지상주의가 대두되고 서구미인이 미인의 기준이 되면서 성형열풍이 일고 여성들은 아름다워지는데 돈을 소비한다 여성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마치 죄처럼 여겨지는 세태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름답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아름답지 않은지에 대한 사유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아름답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다 보는 시각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

게 된다 사물을 물적 대상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내면의 의미와 역사까지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다면 우리 사유의 지평이 확장되고 자신을 대하는 시각도 바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의 고질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도 바뀌게 할 수 있는 매개가 될 것이다.

▲ 개인과 사회

새로운 시선을 가지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은 사회 안에 소속된 존재기 때문에 그 사회 분위기가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나라는 개인도 그 가치관에 함몰되기 마련이다 또 그 사회 속에 소속되어있는 개개인들이 얼마만큼 성숙한 사유를 하고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공동체의 가치관도 달라진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가 병행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욕구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다양한 사유를 받아들이는 사회이므로 다양한 사유 속에서 여성들이 여성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불어넣어줘야 한다 일방적으로 남성들이 제기한 가치관 남성들이 바라보는 미의식을 오히려 여성들이 그것을 내재화하고 동조하면 여성이 추구하는 자유로움은 쉽게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의 명품열풍

사회비평가 강준만에 의하면 우리 사회처럼 명품을 선호하는 사회가 참 드물다고 한다 일본에서 시작된 명품 선호 열풍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명품뿐만 아니라 소위 짝퉁도 판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명품열풍이 원조교제 신용불량자 문제와 연결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사유를 건강하게 확장시켜야 하는 젊은 사람 한참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그런 것에 열중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인 것이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여성이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남성은 능력 있는 남성이고 그렇지 못한 남자는 능력이 없다고 치부된다 남성이 여성에게 부추긴 문제가 다시 남성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의 문제는 곧 남성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므로 남성들이 여성을 성의 문제로만 치부하게 되면 결국 제 발등 찍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가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물질의 풍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다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 물질의 풍요를 벗어난 삶

물질의 풍요를 벗어나려면 다른 어떤 풍요를 추구할 수 있을까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정신적 풍요 쾌락일까 그렇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 지금도 재능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재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어진 기회를 잡고 할 일을 하는 삶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여성들이 추구해야 될 여성다움의 문제가 아닐까

▲ 여성의 할 일과 책임

여성의 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성의 할 일과 여성의 할 일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또 여성의 유리한 점을 악용한다든가 성차별을 없앤다고 여성이 일부러 남성처럼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성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란 것도 분석해가면 사회 요구

와 맞아떨어진다는 예를 들어 매춘여성은 자발적으로 매춘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가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여성이 그걸 원할 수밖에 결정할 수밖에 선택할 수 없게 사실은 간접적인 압력을 주진 않았을까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지만 사회가 얼마만큼 개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여성이 원조교제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사람의 옆에 있는 나 그것이 곧 사회다 한 여성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나는 무관심할 수도 없고 무책임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두 가지 책임이 다 주어진다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야 하는 책임과 타자에게 사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나와 타인 나와 사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받을 것인지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 .